

교육실습 소감문

4주간의 교육실습이 벌써 끝이 났다. 4주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러나 너무도 빨리 지나간 그 시간을 간략히 적어본다. 내가 실습을 하게 된 학교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효성중학교이다. 내가 졸업한 학교로 실습을 나가게 되는 매우 기분이 설렘다. 2010년에 졸업을 하여 2016년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학교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계셨던 분들이 3분 계셨는데, 특히 학생부장님은 각별하다. 현재 내가 학군55기인데 그 선생님은 학군 35기이시고 내가 중3때 전교학생부회장을 할 때 학생부장님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많은 추억이 깃든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행운이 되었다.

내가 맡은 학급은 2학년 1반인데 담임선생님께서 매우 열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미녀 교사이셨다. 담임선생님의 영향이라 그런지 우리 반 아이들도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반이어서 매우 마음에 들었다. 정식으로 첫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일단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도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남자 교생선생님보다는 여자교생선생님을 원했기 때문이다. 남중의 특성을 나도 잘 알기에 그렇게 말문을 열어 4주간 잘 부탁한다고 하며 첫 만남을 만들었다.

교육실습 4주는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진행되었다. 처음 3일까지는 수업 참관도 하고 학교도 구경하며 여유롭게 보냈지만 4일차부터는 교과담당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빠르게 수업을 해볼 기회를 얻었다. 2학년이 총 9개 학급이고 한문이 2단위 과목이니 일주일에 18시간의 수업을 진행해보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업을 위임해주신 담당선생님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수업도 중간에 들어오셔서 봐주시고 했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보라고 용기도 주셨다.

9개 학급을 모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학급마다 분위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비록 같은 내용을 진행할지라도 진행 방식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되었다. 수업 진행한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고맙다. 한문이라는 과목이 솔직히 아이들에게 호감이 가는 과목은 아니다. 그런데 교생선생님이 왔다고 한문시간에 즐겁게 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나 또한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 기억이 있다. 학습지도 밤늦게까지 만들어보고 ppt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만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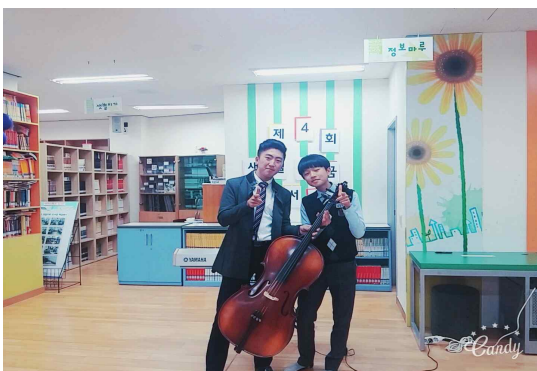
학창시절 즐거운 시간 중 하나는 바로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 마다 급식지도를 했는데 역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점심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리학교 급식차를 이용해 각 학급에서 배식을 하는 구조인데 나도 아이들에게 배식을 해주며 옛날 생각도 해보고 정말 즐거웠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간은 바로 체육이다. 우리학교는 특이하게 스포츠 시간을 따로 두어 아이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유체육활동을 주1회 실시한다. 탁구, 풋살, 축구 등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긴다. 아이들과 스포츠시간에 풋살도 한 게임하고 체육시간에 체육선생님께 양해를 구해 축구도 했다. 나도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1반이 축구 강팀이기에 매우 즐겁게 찬 기억이 있다.



교육실습 중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도서관 미니콘서트’이다. 중학교 시절 나는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학교 음악 선생님께서 첼로를 3년간 배웠다. 그 이야기를 우연히 선생님들과 점심식사하던 중에 말했는데 문화독서부장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원래 5월에 계획되어있던 도서관 미니콘서트를 4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옮기시어 나에게 첼로 연주를 부탁하셨다. 덕분에 모교에서 배운 첼로를 다시돌아와 후배들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짧게 진행되는 행사인데 도서관에서 장기가 있는 학생들이 노래 피아노 클라리넷 등 공연을 하고 내가 마지막 순서를 <엘가- 사랑의 인사>와 <넬라판타지아>를 학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주했다. 각반 TV를 통해 방송되었고 아이들과 많은 선생님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교생이 나와 체육과 12년 선배 모두 2명이여서 연수 수업을 반 강제로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수 학습 지도안을 그저 2~3쪽 짜리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 수석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총23쪽의 지도안을 만들면서 한 수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세삼 느꼈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자전활용법에 관한 수업내용에 인성교육 부분을 첨가해야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아이들 수준에 맞게 활동을 만들었고 효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특히孝 우리 효성중학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다.

4주간의 교생실습은 나에게 행복이고 행운이다. 너무도 행복했다. 전교생들의 사랑을 받고 특히 2학년 전 학급에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 2학년 전체와 친해질 수 있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수업시간에 많은 교감을 했다. 그리고 학교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셨다. 4주간 모교에서 행복한 교육실습을 하면서 교직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반드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2016년 4월의 행복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